

교회 선배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Q) 교회 선배의 이중적인 모습

저희 교회의 아주 착한 오빠가 학교에서는 잘 놀기로 유명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교회 밖에서 불량배처럼 하고 다니는 그 선배의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지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그 선배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인천에서 소희 드림(가명)

A)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사역자가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주님에 대한 생동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십대의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옷의 유행을 따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욕구를 옷차림을 통해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소년은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개 평소에 같이 노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속적인 생각과 활동을 하며 함께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소수의 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한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나면 정서의 불안정으로 인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말하는 책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희 양!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두 얼굴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여도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우리를 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함부로 세상 속에 자기를 내팽개치는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의 새 생활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희 양이 걱정하는 선배 오빠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아직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변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적인 모습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소희 양이 그 선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불리 어떤 일을 시도하다 보면 그 선배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조차 불량스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전도사님이나 담임선생님께 은밀히 말씀 드려 그분들과 함께 그 선배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소희 양 혼자 힘보다는 영력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이끌어주신다면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소희 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 선배의 모습을 변화시켜주실 것입니다.

글/박순옥(수유동교회 고등부 담당 전도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